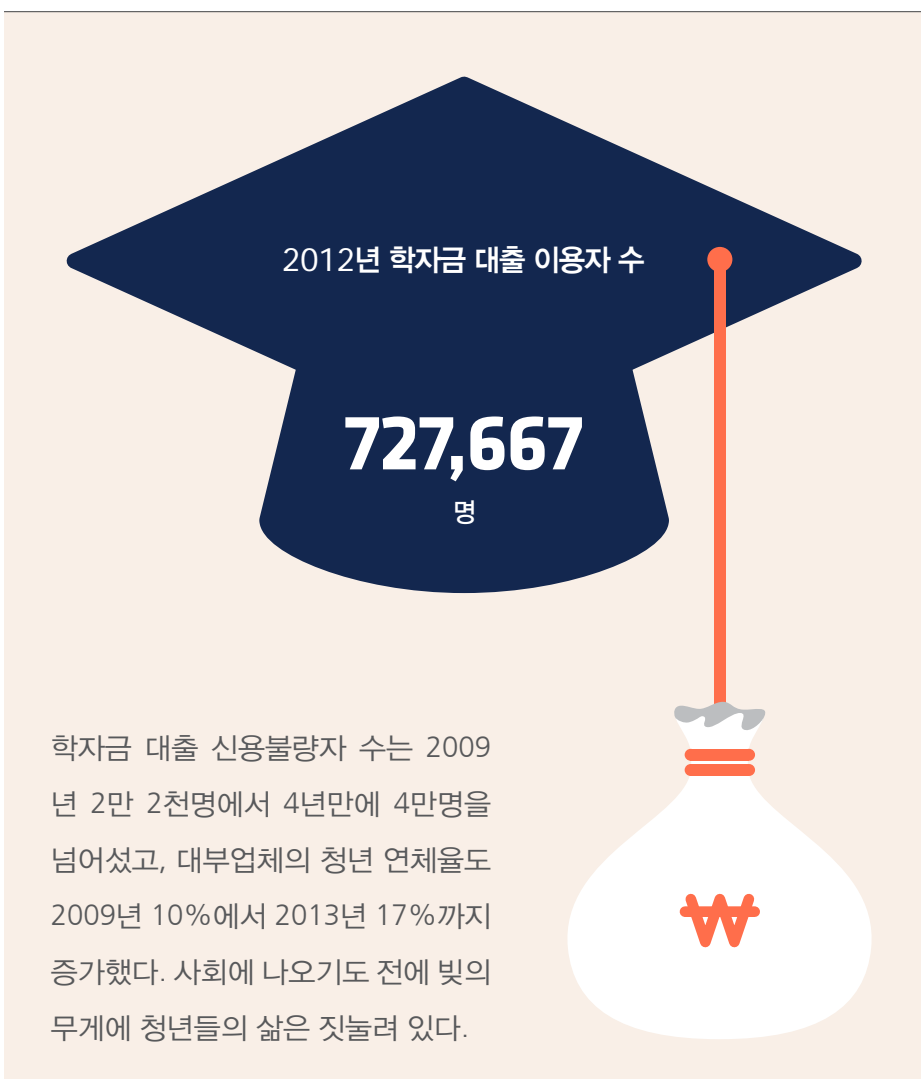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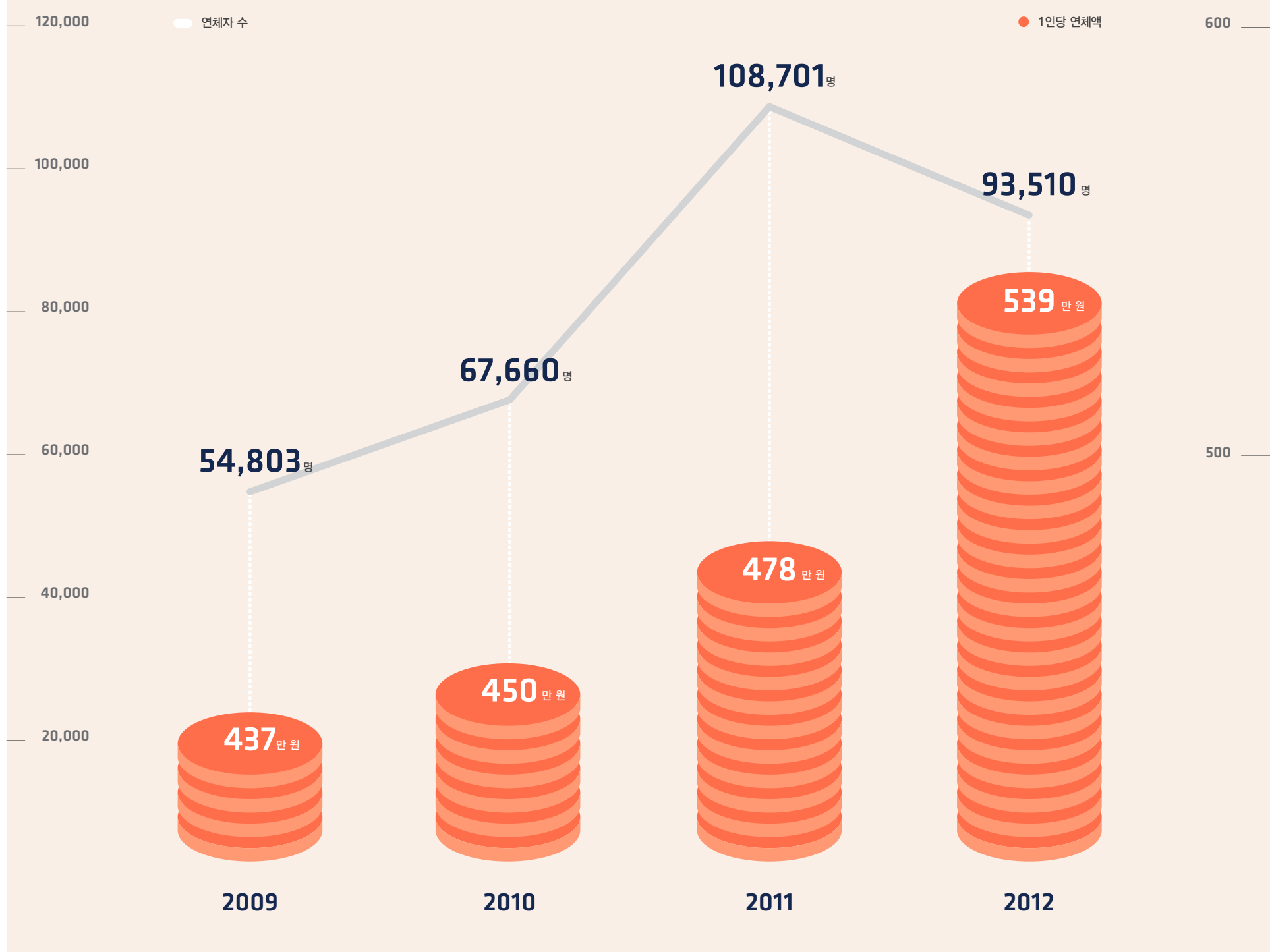
빚쟁이 청년들

청년 부채 문제는 심각하다. 2012년 기준 대학 학자금 대출 이용자 수는 72만 7천명이고,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청년의 대출 건수도 30만건이 넘는다. 시중 은행과 대부업체, 카드 빚 등을 포함하면 매년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빚을 진다. 평균 대출 금액은 학자금 대출 319만원, 저축은행 대출 382만원이다. 직업을 구하기 위해 대학을 다니고, 구직비용을 지불하고 또 주거와 생계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서 빚을 질 수 밖에 없지만 일자리를 통한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이다. 따라서 빚이 늘어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내몰려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.

자료 | 토닥토닥협동조합 청년부채실태조사
한국장학재단 자료 재 가공
금융위원회, 감응감독원 자료



학자금 대출 연체현황



청년들의 대출

